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결정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할 것을 결정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제 101(2012)년 7월 17일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 중요대상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조선인민내무군의 모범적인 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중요대상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조선인민내무군의 모범적인 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인민내무군 만기복무자들이 아버지수령님의 탄생 100돐까지 제대를 미루어가며 말은 중요대상건설에서 충정의 구슬땀을 흘린데 대한 소행을 보고반으시고 군사복무를 마치는 그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 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위대한 수령님과 아버지장군님의 동상을 높이

모신 만수대언덕에 도착하시자 참가자들은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참가자들에게 손을 저어 주시며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조국

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귀중한 청춘시절을 아낌없이 바친 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은 결사옹위!》의 구호가 터져올라 천지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참가자들을

뜨겁게 고무격려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참가자들이 부강조국건설의 새로운 전구들에서 병사시절의 나날에 체득한 군인정신, 군인본매를 더욱 높이 발휘하여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 경상유치원을 찾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경상유치원을 찾으시었다.

귀여운 어린이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고 삼가 인사를 올리며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아이들의 불을 살뜰히 풀어주시고 몇살인가 물어주시며 그들을 다정히 껴안으시고 운동장으로 들어서시었다.

운동장에 고무깔판을 깔아놓으니 좋다고 하시면서 무릎싸움도 하고 잔디밭에 설치해놓은 배그네, 비행기미끄럼대, 로켓비행기를 비롯한 유희시설들을 리용하여 재미나게 놀고있는 어린이들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보내주신 유희시설들을 받고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도 정말 좋아한다는 일군들의 보고를 기쁨속에 들어주시었다.

연혁소개실에 들리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경상유치원에서 음악신동들을 많이 배출했다고 치하하시고 이곳 유치원에서 재능을 익힌 예술인들의 이름도 일일이 꼽아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이어 2층으로 오르시면서 계단에 그려진 발모양의 통행표시를 보시고 어린이들이 오르내릴 때 꼭 우측통행을 한다는 원장의 이야기를 웃음속에 들어주시었다.

2층 종합놀이장에 들리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의사놀이를 하는 어린이들에게 다가가시어 자신의 팔을 내미시며 한번 진찰해보라고 이리시키고는 응석을 부리는 아이들의 불을 다정히 어루만져주시었다.

여러가지 놀이에 정신이 팔려있는 어린이들을 즐겁게 바라보시며 종합놀이장을 잘 꾸렸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리강죽원장을 바라보시며 자신께서 경상유치원에 다시 찾아온것은 확령전어린이들의 지능개발이 중요하기때문이고 일을 잘하고 있는 원장을 내세워주고싶어서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경상유치원이 오늘처럼 잘 꾸러질수 있는것은 련관단위들에서 도와준데도 있지만 원장의 일본새가 크게 작용했다고 하시면서 리강죽원장을 《육심쟁이일군》이라고 정을 담아 친근하게 불리주시었다.

그러시면서 경상유치원원장을 널리 소개하여 그의 일본새를 일반화해야 한다는 최상의 평가를 주시었다.

식당에 들리시어서는 아이들이 리용하는 식탁도 구체적으로 보아주시고 부식물 공급체계에 대하여서도 알아보시며 평양시 당위원회와 중구역당위원회에서 잘 도와주고있다는 보고도 만족하게 들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복도를 따라 걸으시며 전번에도 말했지만 경상유치원에 오면 동심세계에 잠기게 된다고, 잘 꾸렸다고 거듭 높이 치하하시었다.

낮은3반에 들리시어 어린이들이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는 모습과 그들의 그림 솜씨도 웃음속에 보아주시며 그림그리기를 잘 시켜 어릴 때부터 사물현상에 대한 고찰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누가 착하나》라고 쓴 게시판에 오각별이 가득히 붙여진것을 보시고 남보다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려는 어린이들의 동심에 맞는 교양방법이라고 말씀하시었다.

백두산3대장군들을 따라배우는 교양실에 들리시어 운영정형을 알아보시였으며 선물보관장소에 들리시어서는 여러가지 아동도서들의 리용정정도 료해하시었다.

실내온도가 선선하지 못하는데 대하여 헤아려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다신한 사랑에 리강죽원장은 저도 모르게 땀보장조건이 원만하지 못하다고 솔직히 말씀드리었다.

많은 일군들이 찾아왔어도 이야기하지 않

던 문제를 말씀드리었다는 동행한 일군의 보고에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원장이 일을 하려는 일군이라고, 나를 믿고 제기한것인데 자신께서 다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었다.

높은5반 어린이들이 《어머니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하는 기특한 모습과 물동실에서 나풀나풀 춤추는 어린이들의 귀여운 모습도 보아주시었다.

운동실에 들리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룡구대앞에 서서 어린이들이 공을 던져넣는 모습을 한참이나 보시였고 령기운동을 하는 어린이들을 보시고서는 장수들같다고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권투를 하는 재롱스러운 모습과 미끄럼대놀이도 보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어린이들을 환함에 안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한없이 고마운 은정을 받아안고 인사를 울리는 어린이들에게 잘 놀라고 다정히 말씀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돌아볼수록 아이들을 위해 바치는 교양원들의 정성이 지극한것이 알린다고, 이만하면 마음을 놓겠다고 말씀하시었다.

피아노실에서 연주를 능숙하게 하는 어린이들이 화성도 제법 잘 짚는다고 기뻐하시면서 음악신동들을 수많이 키워낸 피아노본

파장 김향숙의 손을 다정히 잡으시고 앞으로 기대한다는 믿음의 말씀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지하층에 꾸러진 물놀이장에 들리시어 물온도도 가늠해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강당에서 경상유치원 어린이들이 출연하는 공연을 보아주시었다.

공연무대에는 노래와 춤 《장군님 오신 날 기쁜 명절날》, 6살 난 김려미 어린이의 피아노독주 《내 나라 제일로 좋아》, 5살 난 백예진어린이의 독창 《김정은장군님 고맙습니다》, 현악중주와 2중창 《보고싶은 대원수님》, 합창 《정말 좋은 유치원 우리 유치원》을 비롯한 종목들이 울랐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발을 동동 구르는 아이들에게 손저어주시며 그들의 행복한 앞날을 축복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이날 경상유치원에 사랑의 선물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경상유치원의 일군들과 교양원들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본분을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축하를 드립니다

평양시 경축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해드린 역사적사건을 축하하는 평양시경축대회가 19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인 문경덕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평양시당 책임비서가 경축대회 개회를 선언하였다. 애국가가 연주되었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영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전달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크나큰

행복과 위대한 선군명장께 드리는 축원의 한마음안고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와 열렬적인 박수를 터쳐올렸다. 조선로동당을 대표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최태복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토론하였다. 토론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결정이 채택된것은 우리 당과 혁명력사에 특기할 일대 사변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최상의 영광이고 행복이라고 말하였다. 격동적인 소식에 접한 온 나라는 끝없는 공지와 환희로 설레이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해드린것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고 강성변영의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가시는 위대한 원수님에 대

한 찬만군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총정의 표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사상과 유업을 받들고서 혁명적 투쟁의 령도로 시대와 역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선군조선의 대양이시며 백두산장군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은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선군혁명의 강위력한 항도적 령도로 강화발전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독창적인 선군명도따라 혁명무력강화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고 우리 조국은 그 어떤 원수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더욱 떨치고있으며 경제강국건설의 토대가 보다 튼튼히 다져지고있다. 토론자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열화와 같은 흠모와

총정의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렸다. 토론자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일심단결하고 그이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적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인민군장병들을 대표하여 윤동현 조선인민군 상장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는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해드린것은 위대한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애국유산인 영웅적인 인민군대의 무진막강한 위용과

선군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펼쳐가시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우리 우러러 모시려는 찬만군민의 간절한 소망이 실현된 일대 경사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주체의 선군혁명유업을 계승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시고 군력강화의 전성기를 펼쳐주시었다. 세계는 당과 군대,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천출위인상에 찬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으며 원수들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령활무쌍한 지략과 무비의 담력앞에 떨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유업의 최후승리를 하루빨리 이룩하는것은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인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숭고한 사명이고 본분이다. 인민군대는 오늘의 이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최고사령관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전군이 생세, 방패가 되어 위대한 김정은원수님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할것이다. 전군에 김정일애국주의가 차넘치게 하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일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령군체제와 강철같은 군기를 확립하며 모든 장병들이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하고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튼튼히 준비할것이다. 백두의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 만단의 진두동원준비를 철저히 갖추며 일단 명령만 내리면 미제와 남조선피괴적패당을 우리 식의 위력한 타격으로 무자비하게 쓸어버림으로써 백두산위인들께서 키우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인민군대의 본래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인민군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의 현

명한 령도따라 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유업수행을 앞당김으로써 선군혁명의 기수, 돌격대로서의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것이다.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토론한 현상주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오늘의 이 사변은 태양민족의 일대 경사이며 주체혁명유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정치적사변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우리 로동계급은 성스러운 혁명령도의 첫 시기부터 로동계급을 강성국가건설에서 선봉적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주시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고 하면서 우리 로동계급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결사옹위하며 그의 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역세게 싸워나가는 결연한 투사들로 준비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사상도 뜻도 숨결도 함께 하며 팔을 끼고 어깨를 걸고 나아가는 선군혁명동지가 되어 원수님의 선군혁명명도를 가장 충직하게, 가장 진실하게 받들어나갈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토론한 리명길 농공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국청사에 특기할 일대 정치적사변에 접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떠치는 찬만군민의 환호성이 온 강산에 메아리치는 이 시각 농업근로자들은 위대한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갈 맹세로 가슴불태우고있다. 농업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결사옹위하며 그의 선군명도를 쫓아오며 받들어나가는 선군시대 애국농민이 될것이다.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결사관철하여 뜻깊은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전환을 일으켰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 조국과 민족의 영원무궁한 번영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지니고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것이다. 청년학생들을 대표하여 토론한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은 500만 청년학생들의 열화같은 총정의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렸다. 그는 선군조선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천겁, 만겁의 생세, 방패가 되어 결사옹위하는 총탄이 되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재로 새기고 당의 강성국가건설투쟁을 실현하기 위한 대고조전진장에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기발을 떨며 휘날리며 대박약, 대혁신을 창조함으로써 조국이 거역하고 인민이 사랑하는 청년애국자, 청년영웅이 되겠다. 오늘의 이 영광과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조선의 강성변영을 위한 대고조전진에서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로서의 성스러운 사명을 다할것이다. 대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노래주악으로 대회는 끝났다. 이에 앞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 최대의 영광과 열렬한 축하를 드리며 최고령도자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것을 맹세다지는 조선인민군 장병들의 결의대회와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의 결의모임이 18일에 각각 진행되었다. 한편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해드린 역사적사건을 축하하는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가 18일과 19일에 진행되었다. 본사기자



민족의 다함없는 신뢰의 분출

김정은 최고령도자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한 경사에 접한 우리는 온 나라 인민들과 함께 크나큰 기쁨에 젖어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 원수칭호를 수여한것은 조국의 강성변영과 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절세위인에 대한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다함없는 흠모의 분출이다. 민족자주위업의 숭고한 사명감을 지니신 김정은최고령도자는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며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성업실현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절세의 애국자이다. 그의 특출한 자질과 뛰어난 정치실력, 교배한 덕망에서 사람들은 민족

의 번영과 밝은 전도를 굳게 확신하고있다. 이 땅위에 강성국가를 건설하고 인민의 부귀영화를 실현하며 통일조국을 일떠세우려는것은 김정은최고령도자의 구상이며 확고한 결심이다.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변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지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천명하신그이의 애국의 말씀은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 정당, 단체, 주의주장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을 통일성업에 초추동하는 고무적기초로 되고있다.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조국

통일의 구성이신 그이의 령도따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고 조국을 통일하러는것은 겨레의 열망이며 확고한 의지이다. 민족의 대경사에 접한 지금은 겨레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높이 받들어 통일조국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올 심심과 열의에 넘쳐있다. 우리 천도교인들은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뜻을 따라 민족의 강성변영과 통일성업실현에 적극 떨쳐나설 애국의 일념에 충만되어있다. 절세위인을 민족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어 민족의 앞날은 창창하며 조국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할것이다. 천도교중앙당 중앙위원회 책임부원 최석현

김정은원수 만만세!

참으로 감격과 흥분없이 받아안지 못할 경이적인 보도이다. 백두산천지의 장쾌한 퇴성에 경탄을 터뜨리고 총화강(총화강)의 거세찬 물결이 넘쳐날 때 가슴후련하던 그때의 심정이라고 할가. 정말 분출하는 격정과 끓어오르는 기쁨을 금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 수여! 이는 조국과 민족앞에 쌓

은신 그분의 업적에 대한 조국인민들의 다함없는 칭송이며 그에게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따르려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마음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일찍부터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높으신 덕망과 탁월한 실력으로 조국의 당과 국가, 군대를 령도하시었으며 그 과정에 커다란 업적을 쌓으시었다. 그분께서 태양의 모습으로 조국인민들앞에 등단하시었던 2010년 9월의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민족만이 아닌 온 세계가 그분의 출중한 인품과 단력, 령도력에 경탄과 매혹을 감추지 못하였다. 나는 지금도 지난 4월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을 경축하는 열병식

주석단에 높이 서신 그분의 모습을 지척에서 비오면서 저도 모르게 아 우리 민족은 또 한명의 위대한 천출명장, 선군명당을 높이 모시었구나 하고 웨쳤던 감격과 환희를 잊을수 없다. 진정한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는 그 어떤 강적도 한손에 거머쥐시고 취락력하시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 그대로

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우리 조국은 강성국가의 반석위에 우뚝 올라설것이며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도 반드시 이룩되고야말것이다. 이는 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민족이 대를 이어 누리게 될 영광을 받아안은 한없는 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목청껏 웨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 만만세!》 재중동포 황려삼

절세위인을 원수로 높이 모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받으셨다는 소식에 접한 저는 지금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이번엔 원수칭호를 수여하기로 결정한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열망과 의지의 표시이고 김정일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기약하는 또 하나의 기쁨의 소식이다 아닐수 없다. 하기에 지금 온 나라 인민이 기쁨과 환희에 넘쳐 원수칭호를 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마음속진정을 담아 다함없는 축하의 인사를 올리고있다. 비록 길지 않은 체험의 나날이었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쌓아올린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심장속깊이 새기고있다. 어버이장군님을 너무도 뜻밖에 잃고 몸부림치는 온 나라 인민을 뜨거운 사랑으

로 감싸안고 일떠세우시어 부강조국건설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다. 그이께서는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지난 몇달동안에만도 탁월한 령도로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더욱 빛내이시고 조국의 위용을 높이 떨쳐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으신 선군의 길에 변함없이 걸으시며 민족자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그이의 모습에서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또 한명의 천출위인의 자애로운 모습을 비추고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인민적령도자의 참다운 귀감을 매일매시각 비오며 격정에 설레시며 조국의 밝은 태일을 확신하고있다. 지금 우리 공화국을 알살

하려는 적대세력의 책동은 국도에 이르고 그속에서 얼마전에는 민족의 최고존엄을 감히 건드리는 특대형 파괴범이 적발, 체포되어 온 나라 인민의 끝없는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그러나 적대세력이 제아무리 발악해도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내 조국은 끄떡없고 원자탄보다 강한 우리의 일심단결도 추호도 흔들리지 않는다. 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받들어모신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새기고 그이의 애국의 령도를 더 잘 받들어 강성대국과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안아오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겠다. 평양시 선교구역 강안동 김련옥

주체성과 민족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고수하고 구현하는데 있다. 주체성과 민족성은 곧 자주성이며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라는것은 우리 나라의 현실이 뚜렷이 실증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지적하신것처럼 우리 조국은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에서 철두철미 주체성을 지키고 민족성을 구현해나가는 자주적인 나라이다. 주체성은 자주위업실현의 근본칙이며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는 주체성을 견지하는것으로 된다. 나라와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독자적으로 세우고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갈 때 자주정치를 한다고 말할수 있다. 이 땅의 인민은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 모시어 사대와 외세의 침해를 철저히 배격하면서 자주위업을 빛나게 개척해왔다. 자주적인 정치에 민족의 존엄이 있고 권위가 있다. 국제무대에서의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의 행사도 정치에서의 자주를 떠나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오늘날 선진국과 후진국, 강자와 약자를 가르는 기준의 하나는 경제와 과학기술발전수준이다. 주체화를 빛나게 실현한 공화국의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자기 땅에 발붙

인 과학기술은 자기의 힘과 기술, 자기의 자원으로 첨단을 돌파하고 21세기 과학기술강국, 지식경제강국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지난날 현대문명과 멀리 떨어져 간단한 농경기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후진국으로부터 자기의 손으로 철을 생산하고 비료도, 비날론과 같은 섬유도 만드는것은 자력갱생에 토대한 자립경제의 발전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에로의 비약적인 도약은 주체의 한걸음을 줄기차게 걸어온 자립경제의 위력을 힘있게 표하고있다. 선군의 기치아래 무적의 강군을 기둥으로 전진무장화, 전국요새화를 실현하고 위력한 군사장비와 전투기술기체들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내는 무진막강한 자위적권력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자주권, 강성국가건설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고있으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다. 주체성을 견지하는것과 함께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근본조건, 근본원칙이다. 자기 민족의 고유하고 우수한 특성을 고수하고 적극 살려나가는것은 모든 민족성원들의 공동의 감정이다. 민족이 가지고있는 높은 창조적능력과 슬기가 구현되어있는 민족성은 나라와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더없이 고귀한 밑천으로 된다. 나라마다 민족적특성이 있고 사람들의 지향과 요구, 생활감정과 풍습도 다르다. 민족의 자주적운명을 개척하고 번영을 창조하는 과정은 다름아닌 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문화가 전면적으로 계승발전되는 과정이다. 우리 민족의 부강조국건설의 력사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민족성을 적극 구현하고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온 력사이다. 민족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려는것이 국가적, 사회적인 관심속에 진행되고 민족고유의 전통과 장단, 미감과 정서에 맞게 민족문화예술이 새로운 경지에서 개화발전하고있으며 음식문화와 민족놀이문화, 세계생활양식과 풍습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민족적이며 우수한 전통과 색채가 적극 장려되고있는것이 공화국의 현실이다. 세계속에 살아도 조선민족의 넘고 모습을 잃지 않고 세월을 넘어, 세기를 이어 대대손손 이어가는 우리 인민의 참모습은 이역만리의 해외포사회에도 그대로 비껴있다. 조선민족의 멋과 향취, 조선적인 전통과 미풍양속을 면면히 살리며 동포사회의 단합을 도모하고 민족의 얼도 지켜가는 해외동포들이다. 온 겨레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조국통일을 위해서도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야 한다. 문은정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고 민족성은 조국통일의 기초이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분열로 하여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보다도 오랜 세월이오며 굳어진 민족적공동성이 더 크다. 동족대결과 분열성을 추구하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책동이 더욱 집요하고 악랄한 오늘 민족자주의 림정에서 민족성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겨레는 언제 가도 민족적단합과 통일을 이룩할수 없게 된다. 어떤 경우에도 자주의 대를 확고히 세우고 민족성을 고수해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지배와 간섭, 매국배적세력의 반동일책들을 끝장내고 평화와 통일의 문을 열수 있다. 민족일세력이 제아무리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도전해도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조국통일을 기어이 성취하려는 겨레의 발걸음을 가로막을수 없다. 민족자주위업의 길에서 주체 100년사를 긍지높이 총화한 공화국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령도따라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고수해나갈 신념과 의지에 넘쳐있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철저히 구현하는데 민족의 존엄도 강성변영하는 무궁한 미래도 있다. 문은정

최고존엄을 감히 건드리려는 자들은 천백배의 징벌을 면치 못한다

극악 무도한 특대형 테로 사건

동족대결에 환장한 남조선반역 《정권》의 지랄발광이 극한점을 넘어서었다.

얼마전 공화국의 해당기관은 남조선정보기관으로부터 직접 임무를 받고 공화국에 침투하여 동상과 대기념비를 파괴하는 것과 같은 테로행위를 감행하려던 범죄자를 적발, 체포하였다.

이번 범죄사건은 동족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증오심이 벅속까지 짙은 리명박역적무리들이 저지른 수 있는 공화국의 최고존엄에 대한 전대미문의 특대형 테로 사건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리명박역적무리들은 지난해에 대국상을 당한 민족의 슬픈 가슴에 칼질하는 것도 성취치 않아 올해에는 민족최대의 태양절경축행사와 6.6절경축행사를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입에는 차마 담지 못할 악담과 뼈아픈 살포행위 등으로 반북대결소동을 벌리면서 공화국의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을 일삼아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도수를 높여 동상과 대기념비 파괴라는 상상할수 없는 특대형 테로행위까지 기도하였다.

그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범죄자의 자백에 의하면 역적패당은 이런 테로행위를 여러차례 시도했다

고 한다. 이 특대형 테로의 《성공》을 위해 역적무리들은 정보원과 기사사 등 남조선의 정보모략기관들을 총동원한 것도 부족하지 월남도주자들로 조직된 이른바 《북민전》(《북한인민해방전선》)이니, 《북한민주화운동》이니 하는 따위의 얼간장동조까지도 내세웠다.

이것은 리명박역적무리들의 반공화국대결광풍이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이 땅에 건립된 동상과 대기념비에는 지난날 약소민족으로 수십여년 동안 비참한 식민지노예살이를 강요당해온 우리 겨레를 구원하고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하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내세워줄 민족의 어머니에 대한 전체 조선민족의 감사의 마음과 승업한 경모의 정이 뜨겁게 깃들여있다.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을 민족의 마음을 깊숙이 뿌리내린 신념의 기둥을 허물어보려고 어리석게 시도하였더니 이야말로 치를 떨 일이 아닐수 없다. 더우기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인류가 대경사의 날로 여기는 태양절과 광명성절에 특대형 테로행위를 감행하려 한 사실은 리명박역적무리들이야말로 조선사람의 피라고는 표만만큼도 없는, 한

하늘을 같이 이고 살수 없는 천하에 돌도 없는 불망종무리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세상을 경악케 하는 이번 사건의 배후조종자는 미국이다. 범죄자들의 자백과 확인된 모든 자료들이 이것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다.

당당한 주권국가인 공화국을 반대하여 미국이 조종해온 이번 사건은 국제법을 란폭하게 짓밟은 증대국가 테로사건으로서 미국이야말로 국제 테로의 왕조라는 것을 백일하에 까밝히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보느냐와 같이 지금 역적무리들은 미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주민들을 유인, 란치하여 남조선으로 끌고가 반공화국모략선전에 써먹는 것은 물론 악질적인 월남도주자들과 반역자들을 내몰아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테로와 파괴압해책동들을 일삼고 있다.

남조선의 정보모략기관들은 미국의 적국적인 지지와 비호속에 반역자들을 규합하여 그 무슨 《동가보》(《동상을 까부시는 모임》)와 같은 각종 반공화국테로단체들을 조직하고 많은 자금과 파괴압해수단까지 쥐어주면서 주권나라들과 북부국경일대에 침투시켜 공화국에

대한 테로압해책동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의 역적패당이 《금번사태》에 의한 《홍수통일》야망 실현을 위해 짐승보다 못한 인간스레기들을 내몰아 비렬하고 너절한 파괴와 테로로 민심을 혼들어 공화국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킬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망상은 없다.

그것은 오히려 공화국 군대와 인민들의 치솟는 적개심과 복수심만을 분출시킬뿐이다.

실사 지구가 깨진다고 해도 조선의 태양은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그 태양을 중심으로 뭉치고 뭉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다.

우리 민족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감히 모독하고 더러운 손으로 어찌 보려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이 지구상에 살아있을 자리가 없다.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태양의 밝은 빛이 두려워 어둠속에서만 쫓라닥질하는 만고역적무리들의 대피약을 반드시 걸살하며 무서운 징벌의 철추를 안기교야말것이다.

김응철

백두산총대가 분노에 떨다

미국과 남조선정보기관의 지령을 받고 우리 공화국에 침투하여 동상과 대기념비를 파괴하려던 자들이 적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이가 갈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아직도 우리 인민들의 뇌리에는 민족의 최고존엄을 건드린 역적패당의 죄악이 새겨져있고 그 원한을 풀지 못한 백두산총대는 지금도 분노에 뭉뚱떨치고 있다.

죽량쳐 죽어도 세원치 않을 천하망종들이 이번에도 또다시 월남도주자들을 비롯하여 인간스레기들까지 내몰아 감히 우리 군대와 인민뿐 아니라 온 세계가 한결같이 태양으로

우러르는 백두산위인들의 절대적인 권위를 허물어보려고 미쳐날뛰고있다고 하니 이 어찌 참을수 있겠는가.

이것은 대결에 미친자들의 망동종의 망동이며 수령경사옹위의 기치를 높이 든 우리 군대에 대한 전면도전, 선전포고이다. 뒤에서 쏠라닥질하며 테로음모까지 꾸민다고 해서 허물어질 우리의 일심단결이 아니며 여기에 실망 우리 인민군대가 아니다.

역적패당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최고존엄을 겨누고 도발을 걸어온 이상 이제 더 다른 선택이란 있을수 없

다. 오직 자비를 모르는 총대에 의한 무자비한 징벌만이 남아있다.

선군명장의 손길아래 무적의 대오로 자라난 인민군대는 그이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단숨에 달려가 역적패당을 씨도 없이 쓸어버릴 만단의 격동상태에 있다.

우리들은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이번 기회에 민족의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건드리려는 극악무도한 역적무리들을 단호히 징벌하고 민족의 승망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안아오교야말것이다.

조선인민군 군관 김철수

역적패당을 단호히 징벌하라

리명박패당이 민족의 최고존엄을 걸고들다 못해 인간스레기들을 신성한 우리 영토에 들이밀어 감히 동상과 대기념비를 파괴하려고 날뛰고있으니 뿔오르는 분노로 이가 갈린다.

철세의 위인들의 동상과 대기념비들은 우리 인민뿐 아니라 온 세계 진보적인류의 최대의 존경과 흠모심의 결정체이다. 그런데 감히 리명박역적패당이 다시 리명박개새끼한테 보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를 리명박이 체 눈으로 똑똑히 보

하나의 용납 못할 죄악이며 하늘의 태양을 땀어보려는 어리석은 자들의 히스레리적발광이다.

죽음의 문어구에서 해매는 리명박역적패당이 우리를 어찌보려고 이따위 망동까지 부리고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짐승무리들에 대한 우리 천만군민의 멸적의 적개심을 천백배로 더해주고 있다.

불합한 그 인간스레기들 당장 칼칼쳐 다시 리명박개새끼한테 보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를 리명박이 체 눈으로 똑똑히 보

게 해야 한다. 이번에 조국과 인민, 가정을 버리고 달아난 인간스레기들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민족의 지주를 받는 천하역적들에게 불어 돌아치다가는 개죽음밖에 차례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절세위인들의 품에서 자라난 로동적위군 대원으로서 민족의 최고존엄을 총대로 보위하며 개놈들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게 멸적의 총창을 서리발처럼 버려나가겠다.

평양시 모란봉구역 월향동 김광철

미국은 테로와 파괴의 원흉

얼마전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 남조선에서 들어온 특대형 테로행위 담당자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공화국에 대한 적대세력들의 비렬하고 악랄한 특대형 테로음모가 만천하에 폭로되어 사람들의 격분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드러난바와 같이 이번 사건은 공화국의 최고존엄에 대한 극악무도한 특대형 테로사건이고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한 국가정치테로행위이다.

테로범죄자들의 죄악이 만천하에 폭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조선의 파쇼당국자들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니, 《민주사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수 없다.》니 뉘니 하며 아닌보살고 있다.

하지만 남조선에 있는 월남도주자들로 조직된 반공화국모략단체들은 《인민군출신의 탈북자 몇명이 동상을 파괴하는 준비를 해온것으로 안다.》, 《우리 단체가 북의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과 삼지연에 있는 동상과 파피를 계획했다.》고 저들의 범죄를 시인했다.

문제는 특대형 테로사건을 직접 지휘, 조종한 배후의 음모자가 누군가 하는 것이다.

이번에 조국과 인민, 부모처자를 배반하고 특대범죄의 길에 들어선 테로분자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것을 잘 알수 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자기를 훈련시킨 남조선정보원들이 이번 《거사》가 미국의 최후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는 것, 자기가 소속되었던 《북민전》 산하 단체인 《동가보》(《동상을 까부시는 모임》)도 미국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고있다는 것, 그래서 자기는 이번 테로범죄가 미국의 지휘와 조종밑에 벌어지고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실로하였다.

테로범죄자의 고백은 이번 특대형 테로사건의 기본장본인은 바로 미국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반미자주적인 나라들을 대상으로 수뇌부테로를 단행함으로써 저들의 침략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미국의 상투적수법이다. 돌이켜 보면 미국은 자기의 침략목표로 정한 나라들에서 국가요인들에 대한 암살과 테로를 조직하고 민심을 약화시켜놓고는 그 나라 내정에 간섭해나섰다.

이런 특대형 테로사건 역시 본질에 있어서 날로 승승장구하는 공화국을 내부로부터 와해시켜 붕괴시키기 위한 미국의 불순한 모략의 산물이다.

미국은 이미 공화국침략을 위해 작성한 《작전계획 5029》에 이번과 같은 테로사건을 쫓아박고 있다.

그에 의하면 공화국에서 《금번사태》가 일어나도록 의도적으로 조장시키고 그를 구실로 미국이 《피동적으로》가 아니라 주동적으로 반공화국선제공격을 가하게 되어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악질적인 월남도주자들과 반역자들을 비밀리에 훈련시켜 공화국에 들이밀어 테로, 파괴, 류언비어류모 등으로 《금번사태》를 유도하려 하고 있다.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노린 이번 특대형 테로사건은 바로 그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이번 사건을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인류가 공인하는 광명성절과 태양절, 전승절에 실행하여 공화국의 민심을 최대한 자극시키려 하였다.

저들의 이러한 모략에 따라 공화국에서 소로나 폭동이 일어나는 경우 《북주민안정화》와 《대량살상무기 및 핵무기 제거》의 미명하에 무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하자라는 것이 미국의 속심이다.

지난 6월 미제 7함대 항모함정단과 남조선해군 제 7기동전단의 참가하에 벌어진 《한》미련함해상훈련은 《작전계획 5029》에 따라 공화국을 침공하여 《대량살상무기》를 탈취할것을 가상한 전연습이다.

이 모든 사실은 《금번사태》를 노린 미국의 복침선제공격기도가 구체적인 실전단계에 들어서고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번 특대형 테로사건은 공화국의 《금번사태》를 유도하기 위한 시초이며 복침전쟁실현을 위한 전주곡이라고 말할수 있다.

현실은 저들의 지배주의 정책실현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미국이야말로 국가테로의 왕조이며 세계테로의 원흉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심히 오산하고 있다. 지구가 열백번

까지고 변한다 해도 령도자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과 뜻으로 굳게 뭉쳐 진군해나가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다. 미국은 국가정치테로사건이 가져올 엄청난 후과를 명심하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김철호

요즘 공화국에서는 텔레비존련속극 《징벌》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방영되고 있다. 사람들이 깊은 감명속에 보고있는 련속극은 해방후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하는 원수놈들을 끝까지 따라가 징벌하고야마는 내부원들의 투쟁이야기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력사는 1946년 3월 1일 평양역전광장에서 진행된 3.1인민봉기 27주년 평안남도 경주대회 주석단에 반동놈들이 수류탄을 던진 위험천만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련속극은 이 사건을 감행한 테로범들을 추적하여 잡아내는 과정을 그려고 있다.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는 특대형 테로범죄를 저지른 놈들을 보며 사람들은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TV에서 이 련속극이 방영

되고있는 지금 한쪽에서는 적대세력이 테로범을 공화국에 잡입시켜 동상과 대기념비를 파괴하려던 음모가 적발되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전해져 사람들을 더욱 격분케 하고 있다.

분렬의 년륜은 어언 67돌기를 새기고있지만 산천이 변해도 변하지 않은 것이 우리

텔레비존련속극 《징벌》을 보며

의 최고존엄을 감히 어찌보려는 적대세력의 위험천만한 기도이고 발악적책동이다. 지금 공화국인민들은 자기들의 심장속에 소중히 간직된 어머니의 모습, 신념의 기둥을 어찌보려는 미제와 리명박역적패당에 대한 분노로 퍼를 끓이고 있다.

도대체 네놈들은 언제까지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릴것인가. 66년전의 그 끔찍한 3.1사건으로도 모자라 오늘

까지 인간스레기들로 규합된 테로단을 공화국으로 들이치는 본심은 과연 무엇이 란 말인가.

미제와 리명박역적패당이 그따위 너절한 파괴압해책동을 벌여놓은 것은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천만군민의 신념

《징벌》을 보며

을 흔들고 핵무기보다도 더 강한 일심단결을 허물어보려는 흉심의 발로이다. 민족이 대국상을 당했을 때에도, 태양절경축행사에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참을수 없이 모독해온 역적패당이다. 이미 씻을수 없는 만고대죄를 저지른 놈들이 이번에는 감히 몇푼의 돈에 자기 혈육들까지 내버리고 도망간 스레기들을 끌어들여 동상을

파괴하려는 천하무도의 망랑짓을 꾸미려 했다. 이번의 범죄사건은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특대모략행위의 연장이며 대결광란의 최극단이 아닐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천만군민의 분노와 치솟는 복수심을 천백배로 폭발시킬뿐이다. 텔레비존련속극의 첫 장면에는 이런 대사가 있다. 박지삼: 년 왜 날 기어코 잡겠다고 이렇까지 모질게 구느냐?

주인공 강진혁: 태양에 돌을 던진 네놈이 그래 이 하늘아래서 감히 무사할줄 알았더냐.

그렇다.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자들은 하늘땅 끝까지라도 기어이 따라가서 무자비한 징벌을 안기교야마는 것이 공화국의 수호자이다.

본사기자 김춘경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돐 경축 열병식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의 무분별한 반공화국 파괴압해책동은 파멸을 면치 못한다

특대형테로행위가담자 국내외기자회견에서 범죄진상 폭로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의 임무를 받고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욕하는 특대형파괴압해책동을 감행하려다가 직발체포된 전영철과 그의 기자회견이 19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있었다.

기자회견에는 우리 나라 출판 보도부문과 총련의 기자들 그리고 중국, 로씨야, 미국, 일본의 기자들이 참가하였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먼저 함경북도 청진시 송정구역 송림2동에서 살다가 월남도주하여 미국과 남조선괴뢰정보기관의 극악무도한 반공화국파괴압해책동에 가담하였던 전영철이 발언하였다.

그는 조국을 배반하고 범죄의 길에 들어섰던 죄인으로서 용서받을수 없는 몸이지만 괴뢰패당의 극악한 특대형테로음모를 고발하지 않고서는 죽을수도 없어 기자회견을 요청하였다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일시적인 난관을 이겨내지 못하고 장사와 거간 등을 일삼다가 나중에는 돈을 받고 한나라를 비법결정시키는 행위까지 저질렀다.

그 녀성이 공화국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범죄사실이 드러나게 되자 나는 법적처벌이 두려워 2010년 4월 24일 중국으로 도망쳤다.

그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도중 박모라는 녀를 알게 되었다.

후에 알고보니 그녀는 공화국에 대한 정감모략행위와 우리 사람들을 유인람치하여 남조선에 끌여가게하는것을 전문으로 하는 괴뢰정보원 첩자였다.

공화국의 내부형편과 관련된 비밀을 뽐내면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하는 그녀의 꼬임에 넘어가 이미전부터 공모해오던자들 통해 탐지한 자료들을 여러차례 넘겨주었다.

결국 괴뢰정보원의 뜻에 걸려드는 해어날길 없는 구렁텅이에 빠진 나는 그들이 앞선해준 비밀정보를 따라 남조선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후 괴뢰정보원들의 검문과 《하나원》에서의 《교육》과정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남조선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에서 살게 되었다.

먼저 내가 어떻게 괴뢰정보원들의 마수에 걸려 특대형테로 임무를 받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말하였다.

남조선에서 직업을 구한다는것은 죽기보다 더 힘든 일이다.

더우기 나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램바와 비난을 받고있으며 그나마 차례전 현한 일자리마저도 때우고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다.

적들은 《탈북자》들의 이러한 심리를 리용하여 그들을 매수하여 반공화국파괴압해책동에 끌어들인다.

내가 직업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던 지난해 11월 8일경 《하나원》에서 알게 된 리수복으로부터 큰 밑천을 마련해줄 사람 소개해주겠다고 서울에 급히 와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서울에 도착한 나는 그의 소개로 반공화국모략단체인 《북민전》(《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라고 하는 김성민을 만나게 되었다.

이자로 말하면 공화국에서 반역죄를 짓고 월남도주한 악질분자이다.

내가 월남하게 된 동기와 생활형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물어

보고난 녀는 《북민전》은 미국의 후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큰 사업을 하나 계획하고있는데 함께 성사시키면 많은 돈을 벌수 있으니 잘 생각해보라고 하였다.

다음날 이자는 지금 《북민전》에서 《동까모》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에 대해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후원을 해주고있다. 이 조직에 들어와 일해보지 않겠는가 하고 하였다.

《동까모》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고 물어보는 나에게 이자는 《동상을 까부시는 모임》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큰 돈을 벌려면 이런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은 강연을 몇번 하고 배라를 몇장 날리는것과는 대비도 되지 않는다. 성공만 하면 평생 잘 먹고 살수 있는 돈을 벌수 있다. 당시이와 일남 공화국에 죄를 짓고 남쪽으 로 내려왔는데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누가 랑하겠는가고 끈질기게 설복하였다.

돈에 환장한 나머지 조국을 배반하고 도주하였지만 상상조차 할수 없는 어마어마한 범죄계획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더우기 그런 특대형테로행위를 내가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선뜻 대답할수 없었다.

내가 침묵을 지키자 그들은 잘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후에 자기 이름을 대고 사람이 찾아가면 만나보라고 하였다.

며칠이 지나 김성민이 보냈다고 하면서 40살정도 나보이는 고동공이라는자와 50살정도 되는 심가라는자가 찾아와 예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것만 물어보고 갔다.

이후에 다시 나타난 녀들은 자기들이 김성민을 통해 《동까모》를 조직하고 테로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자금도 보장해주었다. 내겐 내면 실패했다고 하면서 내가 제일 적임자이고 꼭 할수 있을것 같아 찾아왔다고 본색을 드러내놓았다.

나는 그때야야 이자들이 바로 김성민을 뒤에서 조종하는 괴뢰정보기관놈들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미 타락한 상태에 빠져있던 나는 이 기회에 목돈을 벌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그 일을 하면 돈을 얼마나 주겠는가고 물어보았다.

이번에 계획하고있는 일은 《거사》이기때문에 《성공》만 하면 일생 먹고 살수 있는 돈을 받을수 있다고 한 그놈들의 달콤한 얼림수에 넘어가 나는 특대형범죄행위에 가담하는데 동의하였다.

그러던 지난해 12월초 이자들은 자기들의 과장이라는 녀를 나에게 소개하였다.

그녀는 나에게 《동까모》의 작전을 상기시키면서 동상폭파 계획과 이미 준비하고있는 폭파설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다.

그에 의하면 폭파설비(폭발물 투척기)는 보은병행태로 된 최첨단설비인데 150~300미터에 있는 목표를 파괴할수 있게 되어있다.

목표가 조준된 때로부터 12시간 동안 이 무기는 자동체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설치자 4~6km안에서 원격조종기로 스위치를 누르면 자동발사되어 대상물을 폭파하게 된다.

또한 《거사》진행절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었다.

폭파설비가 제작완성되면 사용자는 먼저 공화국경과 린접한

중국에 들어가 대상물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대기하여야 한다. 폭파설비는 세계적으로 통제받고있는 테로무기이므로 3개의 부분품을 각기 다른 통로를 통해 밀반입하여 현지에서 조립하고 성능검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거사》단행자에게 넘겨지게 된다.

비밀통로를 거쳐 공화국령내에 들어간 《거사》단행자가 해당대상을 폭파할수 있게 기재를 설치하고 현지에서 폭파시간을 대주면 30분부터 1시간정도 인공지구위성이 그 지역 상공에 머물면서 촬영을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나는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해치려는 괴뢰정보기관의 특대형파괴압해책동에 말려들게 되었다.

다음은 괴뢰패당이 이번 파괴작전을 어떻게 짜고 그 실행을 위해 어떻게 악랄하게 책동하였는가에 대하여 말하였다.

지난해 12월 21일 아침 8시 30분경 과장님과 요원 2명이 또 다시 나를 찾아와 저들이 준비한 작전계획을 내놓았다.

그에 따르면 밀수업자로 위장한 나는 폭발물투척기가 들어있는 생활필수품지함파 폭발같은 다른 지함을 준비하여 국경비밀통로를 개척하는 밀수업자에게 되물로 주고 폭파설비가 은닉된 지함은 그의 의식을 사지 않게 우 리 어머니가 살고있는 집에 가져가는것으로 해야 하였다.

다음은 폭파설비와 아바트육상에 올라가 지함위에 폭파설비를 설치하고 어머니집에 들러 원격조종장치가 내장되어있는 손전 화기를 어머니에게 주면서 아침 7시까지 나에게서 손익이 없으면 전화를 하는 단속(원격조종단속)을 눌러 나를 찾으라고 말하고는 집을 떠나야 했다.

밀수업자의 도움으로 다시 국경을 넘어 나는 중국으로 빠져나와 내가 가지고있는 또 하나의 원격조종장치의 단추를 눌러 동상을 파괴하는것으로 되어있었다.

이 계획대로 하면 만일의 경우 내가 중국에서 사용하는 조종장치는 제만 남겨둬 폭파설비의 나머지부분도 자체폭파되기에 화를 하려고 단추를 누르게 되므로 자동체제로 동상을 폭파할수 있게 된다.

녀들은 국경도시에 위치한 동상과 맞은편에 있는 아바트육상사의 거리는 100미터정도 우리 어머니집에서 동상까지의 거리도 500미터정도라는것을 이미 확인하였기때문에 충분히 《성공》할수 있는 안이라고 하였다.

녀들은 특출하였던 토의내용을 인쇄한 문건을 나에게 주면서 수표를 하고 지장을 찍게 하고는 이 계획은 최종적으로 미국에서 승인되어야 하며 그레야 자금이 지출될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으로 급히 떠나는것이였다.

그때 나는 이자들이 미국정탐기관의 배후조종을 받는 괴뢰정보기관 요원들이라는것을 다시금 정확히 알수 있었다.

12월 27일 나를 찾아온 요원들은 지금 미국에서 도착하는 길이 라고 하면서 우리가 세운 폭파 계획이 미국에서 승인되었다. 지난 시기 《북민전》을 통해 여러차례 시도하다가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하면서 올해 2월 16일이나 4월 15일에 《거사》를 할수 있겠는가고 물어보았다.

녀들의 제안에 나는 맞장구를 치며 2월로 시기를 정하였지만 폭파설비가 준비되지 않아 《거사》는 4월로 미루지 않으면 안

되었다. 녀들은 올해 4월 15일에 《거사》를 단행하게 되면 북에서 품 들어 준비한 태양철 100경경축행 사문위기를 호러놓을수 있고 소문도 더 크게 낼수 있으며 북의 민심도 흥흥하게 할수 있다. 그파문은 대단할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폭파사건은 철저히 외부세력이 아니라 공화국내부에서 일어난것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미국과 괴뢰들이 노리는 목적이였다.

4월 15일로 《거사》가 결정된 후 녀들은 나의 건강상태와 류동정형 등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일거일동을 면밀히 감시하였다.

2012년 3월 15일 나를 찾아온 괴뢰정보기관 요원들인 고동공과 심가놈은 중국에 내가 국경을 안전하게 넘어가는 문제를 비롯하여 사전조사를 하면서 폭파설비가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라는 임무를 주었다.

그후 나는 사중과 왕복비행기표, 공작금을 받아가지고 3월 24일 비행기를 타고 중국 연지에 도착하였다.

신문을 《조선일보》 기자로 위장한 고가놈이 나를 안내해주었다.

여기서 나는 이놈이 폭파설비가 현지에서 도착할것을 조립하고 정상동작하는가를 확인한 후 나에게 넘겨주게 되어있는 괴뢰정보원소속 약전전문가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녀들이 계획하였던 4월 《거사》도 폭파설비가 준비되지 못한것으로 하여 또다시 미루어지게 되었다.

전승기념일인 7월 27일 0시에 계획한 《거사》를 단행할 녀들의 조직에 따라 나는 5월 5일 또다시 고동공과 함께 중국으로 갔다.

연지에서 대기할 때 고가놈은 나에게 폭파설비의 기술설명서를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폭발물투척기의 조립방법과 사용방법, 폭파결과 등이 상세하게 적혀있었다.

그에 의하면 폭파설비가 동작하여 목표물을 파괴하게 되면 현 장에는 제만 남겨 둬 폭파설비의 나머지부분도 자체폭파되기에 화를 하려고 단추를 누르게 되므로 자동체제로 동상을 폭파할수 있게 된다.

나는 고가와 함께 현지에서 심가의 지령대로 국경통로를 열기 위한 사전준비를 하였다.

그러던 지난 5월 11일 심가놈이 갑자기 숙소에 나타나 준비정형을 료해하고 현장에 나가 확인해보라고 하였다.

아마 최종적으로 직접 점검해보려는것 같았다.

그러하여 나는 지난 5월 13일 밤 9시 30분경 고가, 심가놈과 함께 두만강대안에 나갔다.

나는 심가에게 내가 정한 국경비밀통로가 안전하다는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사전에 손전화로 린계를 취하로 한뒤 공화국경내의 밀수업자에게 상품점권을 가지고 나오도록 린락을 하였다.

약속된 시간에 강을 건너와 우리가 있는 장소에 도착한 밀수업자는 자기가 가져온 상품점권을 넘겨주었다.

나는 녀들이 시키는대로 그

에게 점본품값을 후하게 치르어 주고 앞으로 거래가 실현되면 봉치돈을 받게 된다고 하면서 그에게 손전화기 3대, 손전화기카드 3개, 담배와 당과류 등을 넘겨주었다.

이날 심가놈은 밀수업자가 강을 넘어오는 장면과 나를 만나 물건을 넘겨주는 장면, 밀수업자가 두만강을 다시 넘어가는 장면 등을 구체적으로 료화촬영한 다음 차안에서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면서 이번 작전은 완전히 성공할수 있다. 상급에서도 이것을 보면 대단히 만족해할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폭파설비는 6월말까지 다 준비되니 차후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다.

그동안 나는 남조선으로 돌아간 심가놈과 괴뢰군 기무사 처장으로 자기를 소개한 손기만이라는자와 계속 린계를 가지였다.

이것을 놓고 보면 이번 《거사》에는 미국의 조종밑에 괴뢰정보원놈들은 물론 괴뢰군 기무사놈들도 개입되어있었다.

결국 남조선의 정보모략기관들이 총출동한셈이다.

폭발물투척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나는 과장놈이 이전에 지령을 준대로 《거사》장소를 한 번 확인해보기로 하였다.

이미 비밀통로는 개척되어있었으므로 국경을 넘나드는것은 문제로 되지 않았지만 현지확인을 해두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였던것이다.

이리하여 나는 지난 6월 18일 밤 11시경 국경을 넘어 공화국 국경도시로 들어왔다.

현지에 도착한 나는 녀들이 과업을 준대로 동상과 그 주변에 이상이 없는가를 료해하였다.

그다음 국경쪽으로 나가다가 새벽 2시경에 체포되었다.

공화국 보위기관에서는 이미 나와 같은 범죄자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추적하고있었던것이다.

내가 체포됨으로써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며 추진시켜온 특대형 《거사》는 마지막단계에 와서 완전히 파탄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적들의 비렬한 음모책동이 끝났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내가 직발체포되었지만 미국과 괴뢰정보기관은 앞으로 나와 같은 제2, 제3의 전영철을 계속 만들어낼것이며 이루지 못한 특대형테로음모를 기어이 실현해보려고 발악할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달달로 바위를 깨보려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망상이라는것을 나는 체험을 통하여 똑똑히 알게 되었다.

이여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였다.

조선중앙통신사 기자: 괴뢰패당의 반공화국파괴압해책동에 대해 더 알고있는것을 말해주었으면

한다.

대답: 지금 남조선괴뢰들은 월남도주자를 비롯한 반역자들, 악질적대분자들로 그 무슨 《단체》니, 《조직》이니 하는것들을 내오고 이를 통해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대표적으로 《북민전》을 들수 있는데 이 단체는 공화국에 대한 내부교란음모와 《체제전복》활동을 기본목적으로 조직된 모략단체이다.

최근에는 그 무슨 《특수공작조》라는것을 침투시켜 공화국에서 《소요》를 일으키기 위한 비렬한 음모까지 꾸미고있다.

《북민전》에 망라된 녀들은 나를 만날 때마다 《충격적인 사건》을 만들어내며 몇년전부터 예스고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괴뢰정보기관으로부터 계속 독촉을 받는다고 하면서 방동을 때를 형편에 있다고 우는 소리를 하였다.

올해 1월 인천시에 있는 한 술집에서 한눈을 만났던적이 있는데 내게 북에서 왔다고 소개를 하자 그놈이 하는 말이 자기가 든 단체에서는 북의 기관물건들에 락서를 하고 장마당에서 류인비어를 퍼뜨리는것과 같은 공작을 한다고 하면서 성공하면 벌이가 팬찮다고 하는것이였다.

이것만 보아도 남조선괴뢰들이 《북민전》만이 아닌 수많은 모략단체들을 조직하고 술한 돈을 뿌려가며 반공화국대결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괴뢰패당은 공화국을 비방중상하는 모략선전도 대대적으로 벌리고있다.

괴뢰보수언론들은 물론 월남도주자들을 주축으로 하여 만든 《자유북한방송》, 《북한개혁방송》 등을 통해 매일과 같이 공화국을 비방중상하는 게나발을 불어내고있다.

녀들은 저들의 모략방송에 신빙성을 부여해보려고 《북에서 직접 입수한 자료》라느니, 《중인을 공개하면 그의 신상에 위협이 조성되기에때문에 공개할수 없다》느니 하는 꾀변까지 늘어놓고있다.

한편 괴뢰패당은 극우보수단체들과 강대들을 내세워 공화국을 비난하는 《강연회》, 《좌담회》, 《토론회》 같은것들을 매일과 같이 벌려놓고있다.

지난해 8월 15일 서울역광장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모여 무엇인가 구경하는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가보니 공화국사람처럼 옷차림을 한 몇몇 녀들이 나와서 동영상을 찍고있었다. 《북에서 직접 입수한 자료》라느니, 《중인을 공개하면 그의 신상에 위협이 조성되기에때문에 공개할수 없다》느니 하는 꾀변까지 늘어놓고있다.

이처럼 괴뢰패당은 남조선인민들에게 북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

하고 공화국내부를 교란, 와해시키기 위한 비렬한 모략책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다.

총련 조선신보사 기자: 미국이 이번 특대형정체로사건에 개입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할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이야기해주었으면 한다.

대답: 그것은 나를 조종하던 고가놈과 심가놈의 말과 행동을 통해 알수 있다.

그놈들은 이번 《거사》를 하면서 미국의 최승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레야 자금도 지출된다고 말하였고 계획을 확정하자마자 미국으로 떠났다.

가서는 나에게 전화로 《미국에서 승인되었다. 축하한다.》고 기뻐서 말하였으면 나를 찾아와서는 미국에서 오는 길이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극비에 불이고 누구와 접촉하지도 말라고 당부하였다.

《북민전》 대표라고 하는놈도 저들이 조직한 《동까모》가 미국의 후원을 받고있다고 하였으며 작년 6월과 8월에 미국에 갔다왔다. 성과가 없어 미국의 신용을 잃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소유를 계속하였다.

이것을 놓고볼 때 이번 사건에 미국이 깊숙이 개입되어있다고 말할수 있다.

미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극악한 테로의 왕국이며 모략과 범죄의 원흉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조선사 기자: 당과 조국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기자회견장에 있었는데 지금의 심정이 어떠한가 물어보았다.

대답: 미국과 괴뢰패당의 비렬한 파괴압해책동의 일단이라도 발가놓았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그리고 내가 저지른 범죄가 용서받을수 없는 죄악이라는것을 다시금 통렬히 느끼고있다.

나에게도 어머니와 처자가 있으며 친척도 있다. 태를 묻은 고향도 함께 자란 동무들도 있다.

그러나 돈에 환장한 나머지 이 모든것을 버렸을뿐 아니라 안자 키워준 조국을 배반하고 그에 칼질하는 범죄를 감행하게 되었다.

이것이 나의 써지린 교훈이다.

전영철은 기자회견을 마치고서 자기처럼 돈에 매수되어 괴뢰패당의 테로압해책동에 가담하는자들에게 그런것을 해야 차례질것은 수치와 죽음밖에 없으며 이제라도 바른길을 들어서라고 말하고싶다고 하였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대결광란에 돌입해도 공화국의 철통같은 일심단결은 절대로 깨뜨릴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고 부질없는것을 죽시 걸어치워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제1004호

이 된 정신병자의 히스레리 적발작이며 가스로운 추태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리명박역도는 최근 련속 터지는 친인척, 측근들의 부정부패사건으로 인한 남조선민심의 분노와 《새누리당》을 비롯한 제 족속들의 버림으로 식물인간의 처참한 신세가 되어 청와대 뒤끝방에 들어박혀 머리도 쳐들지 못하고있다.

이러한자가 세상사람 웃기는 《통일항아리》 광대극에 출연하여 또다시 체제대결의 나발을 불어댄것은 《대

북정책》의 총파산으로 땅바닥에 떨어진 체면을 수습하고 제놈에게 쏘려는 규련어론의 이복을 판대로 돌리며 대결을 부추기기 위한 최후 발악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이미 괴뢰역도는 지난해 6월에도 《통일》을 발행한바에 동수 있다. 《날 밤의 개짓는 소리같은 망발로 만사람의 조소와 규련을 받으며 있다. 이번에도 역도가 우리 민족의 통일념을 모독하면서 그 무슨 《통일항아리》라는데 직접 돈을 넣는 추태를

부리며 또다시 악담을 꿰쳐 댕건은 개꼬리 삼년 두어도 황모될수 없듯이 백번 죽어도 대결적본성을 버리지 못한다는것을 여실히 드러낸것이다.

리명박역도의 꼬락서니가 얼마나 역겨웠으면 남조선 각계층도 《정말 가까이 온것은 MB의 종말》, 《MB정권의 파멸은 도적처럼 찾아온다》, 《MB가 큰 까이 있다》고 조롱하고있겠는가. 리명박역도가 린종을 앞두고 미쳐도 더럽게 미친듯이

무 기 력 한 권 력 을 비난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12일 남조선인민들을 제재로 폭행하는 미제침략군의 치외법권적행위를 눈감아주는 권력을 비난하는 글을 실었다.

같은 지난 5일 미군 헌병들이 경기도 오산미공군기지주변에서 남조선주민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폭행을 가한데 대해 썼다.

당시 남조선경찰이 이를 지켜보고있으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음으로써 미군이 자기의 권한을 넘어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같은 규탄하였다.

같은 이맘때부터 그곳에서 주민들에 대한 미군의 폭행만행이 계속되었지만 그때마다 남조선경찰이 《미군을 무서우니 비난 잘못했다고 하라》고 비굴하게 놀아냈다고 비난하였다.

이로부터 무기력한 권력을 체험한 주민들이 미군의 만행에 대해 어찌하지 못하고있으며 《이곳에서는 경찰이 무용지물》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고 글을 밝혔다.

같은 이를 통해 미군이 남조선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치외법권적으로 놀아내도 권

력이 막아주지 못하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개탄하였다.

더욱 한심한것은 미군이 이번 범죄행위에 대해 공무중이라고 구실대던 남조선은 미국의 불평등한 《행정협정》때문에 처벌권을 미국에 넘길수밖에 없는것이라고 같은 지적하였다.

같은 이로부터 각계층에서 미군범죄를 막으려면 처벌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울려나오고 반미투쟁열의가 높아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지난 16일 리명박역도는 청와대에서 괴뢰필부기가 그 무슨 《남북통일재민》을 마련한다는 명목밑에 벌린 《통일항아리》 기부놀음에 참가하여 또다시 불순한 악담을 늘어놓았다.

괴뢰역도는 《통일은 정말 가까이 왔다》느니, 《노을을 보고 해가 뜨는것을 알수 있듯이 여러 상황을 보면 통일이 멀지 않았다는것을 알수 있다》느니 하고 뉘그러는가 하면 《통일은 더 큰 대한민국이 되는것》이라는 망발까지 내뉘었다.

체제대결의 허황한 망상을 다시 한번 드러낸 리명박역도의 도발적악담은 린종을 앞둔 산송장, 동족대결에 환장

《3년동안 지속되던 머리 아픔이 3시간도 못 가서 낫는다면 믿어지십니까?》

요즘 새로 개발된 특사항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있다. 지난 5월 제15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시회에서 특사항을 출품한 평천고려약공장 매대앞은 수많은 참관자들로 어깨성을 쌓았다. 그속에는 아무런 인공사항이 천연사항만 하라 하는 의문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에게 특사항의 덕을 토포하던 사람들이 저마끔 신비한 그 효능을 설명해주었다. 삽시에 매대앞은 특사항에 대한 찬양 일색으로 변하였다.

《나는 원래 혈압이 높고 피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심장이름, 머리아픔이 고통을 겪곤 했다. 그런데 특사항을 꾸준히 쓴 결과 그런 증상들이 씻은듯이 사라지고 혈기가 왕성해졌다.》, 《오래전부터 뇌진탕후유증에 좋다는 신약을 다 써보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

신약에 비한 고쳐약의 우월성으로

후 우연히 특사항을 알게 되어 쓰기 시작한 다음부터 잠을 푹 자게 되었고 뇌라움 후유증도 없어졌다.》, 《뇌혈전으로 특사항을 써보았는데 천연사항 못지 않았다. 머리아픔,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언어장애, 운동마비 등이 다 풀려났다. 정말 신기하다.》

《하다면 그렇듯 효능높은 특사항은 어떤 약인가? 일명 인공사항으로 불리우는 특사항은 특색식품정유들의 복합체로서 피순환을 개선하고 어혈을 없애는 약재성분과 진통, 진정작용이 있는 특색식품의 향 그리고 필수미량원소복합체가 함유되어 있는 기능성고려약이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천연사항을 귀중히 여겨왔다. 사항은 사람들의 병치료에서 매우 귀한 특약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평천고려약공장에서 개발한 특사항은 천연사항

의 성분구조와 매우 유사한것으로 하여 사항과 거의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있다.》

《특색식품정유들의 복합체인 특사항은 관상혈관을 확장시키고 산소부족증상을 없애며 미소순환을 개선하는것과 함께 뇌혈전증, 뇌진탕후유증, 순환기계통과 신경계통, 소화기계통질병과 일산화탄소중독, 방사선 및 콤포



평천고려약공장에서 개발한 특사항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이다.

고 한다. 《동의보감》에는 여름철에 찬음식을 삼가하며 따뜻한 음식을 섭취해야 《토사관란》(심한 구토와 설사사지가 뒤틀리는 병)에 걸리지 않으며 배가 항상 따뜻한 사람이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기술되어있다.》

《여름철의 대표적보신음식으로는 단고기국과 삼계탕이 예로부터 널리 알려져왔다. 단고기국은 1795년 리조 22대왕 정조때 왕의 밤상에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올랐다는 기록이 있다. 삼계탕은 작은 닭에 고려약재를 넣어 만든 음식으로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무더위와 습한 날씨조건으로 몸이 쇠약해지면 삼계탕으로 영양을 보충하였다고 한다. 특히 땀을 흘려야 한다는것이다. 그리유는 날씨가 더워지면 몸의 표면은 뜨거워지지만 내부는 차가워지며 반대로 날씨가 추워지면 몸의 외부는 차가워지지만 내부는 뜨거워지며 더위로 땀을 많이 흘리면 몸이 쇠약해지기에땀이

터중추근 등 그 치료범위가 대단히 넓다. 특사항은 뇌혈전으로 인한 머리아픔 92%, 어지럼증 96%, 언어장애 87%, 만성허혈성심장병으로 인한 심장부위아픔 92%, 숨가쁨 76%, 손발저림기 74%의 완치율을 보이고있다.》

《세계적으로 발병률과 사망률이 높은 허혈성뇌 및 심장질환질환을 고려약으로 치

료해보려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평천고려약공장의 문순우씨배인과 윤진우, 리은숙을 비롯한 기술자들은 전통적인 고려의학도법과 첨단생물공학기술로 뇌 및 심장혈관계통의 질병치료에 써오던 약초들에서 정유를 추출하고 천연고려약재와 혼합하여 조선사람의 체질에 맞는 고려약을 만들어냄으로써 난치병치료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공정에서는 특사항뿐 아니라 특미환, 심전대보환, 창출고, 단나무열매주사약, 참나무부종물약, 기름참나무간염단약약, 삼지구엽초장정알약, 어로토를 주성분으로 한 갈시유알약 등 50여종의 수많은 고려약들을 생산하고있다.》

《발명 및 새 기술전시회와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여러차례 우수한 평가를 받은 효능높은 고려약들은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신약에 대한 의존심을 밀어내고있다.》

본사기자

로해보려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평천고려약공장의 문순우씨배인과 윤진우, 리은숙을 비롯한 기술자들은 전통적인 고려의학도법과 첨단생물공학기술로 뇌 및 심장혈관계통의 질병치료에 써오던 약초들에서 정유를 추출하고 천연고려약재와 혼합하여 조선사람의 체질에 맞는 고려약을 만들어냄으로써 난치병치료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공정에서는 특사항뿐 아니라 특미환, 심전대보환, 창출고, 단나무열매주사약, 참나무부종물약, 기름참나무간염단약약, 삼지구엽초장정알약, 어로토를 주성분으로 한 갈시유알약 등 50여종의 수많은 고려약들을 생산하고있다.》

《발명 및 새 기술전시회와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여러차례 우수한 평가를 받은 효능높은 고려약들은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신약에 대한 의존심을 밀어내고있다.》

본사기자

김일성방송대학 교무부에서 알립니다

김일성방송대학에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 59돐을 맞으며 기념특강을 다음과 같이 조직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의제목: 조선전쟁과 그 승리에 대한 정확한 리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강의시간: 1강의

송출날자: 주제101(2012)년 7월 26일

홈페이지주소: http://www.ournation-school.com

전자우편주소(E-mail): schoolmanager@silibank.com

청강생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전시된 금동아미타여래 3존불상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 금동아미타여래3존불상이 새로 전시되어 력사학자들과 국제총 근로자들, 해외동포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고있다. 이번 새로 전시된 금동아미타여래3존불상은 2009년 10월 강원도 금강산 내금강리에 위치한 금강산의 주봉인 비로봉정점비랑에서 버락이 철 때 떨어진것이라고 한다.

연구자들의 말에 의하면 불상은 고려말~리조초시기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불상은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지장보살을, 왼쪽에는 관음보살을 결부처로 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아미타3존불상은 세나라시기부터 세지보살, 관음보살을 결부처로 하고있었는데 고려말경부터 세지보살 대신에 지장보살이 결부처로 등장하여 아

미타3존불상의 새로운 구성을 이루었다고 한다. 아미타3존불상가운데서 아미타여래좌상은 두손에 보주를 잡은 모습으로 형성되었는데 이것은 보기도문 형태로서 불상연구에서 귀중한 자료로 된다.

결부처인 지장관음보살상은 지장으로서의 근엄함, 관음으로서의 자비함과 너그러움이 열결의 요소요소에 세심하게 묘사되어있다. 새로 전시된 금동아미타여래3존불상은 불상들의 전체

적인 비례가 좋으며 조형예술적으로 잘 형성된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되고있다. 불상은 비랑에서 떨어질 때 지장보살이 잡은 석장(지팡이)과 관음보살이 잡은 연꽃가지의 옷부분이 부러져서 약간의 파손을 입었다. 조선중앙력사박물관 18호실에 새로 전시된 금동아미타여래3존불상은 우수한 문화를 발전시켜온 우리 민족의 슬기로운 재능과 우수한 문화를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적인 비례가 좋으며 조형예술적으로 잘 형성된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되고있다. 불상은 비랑에서 떨어질 때 지장보살이 잡은 석장(지팡이)과 관음보살이 잡은 연꽃가지의 옷부분이 부러져서 약간의 파손을 입었다. 조선중앙력사박물관 18호실에 새로 전시된 금동아미타여래3존불상은 우수한 문화를 발전시켜온 우리 민족의 슬기로운 재능과 우수한 문화를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 새로 전시된 금동아미타여래3존불상

이열치열과 삼복철섭생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삼복더위때 더위를 극복하고 쇠약해지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열치열의 방법을 썼었다. 《열은 열로 고쳐시킨다》는 이열치열을 고려의학에서는 여름철에 더워진 몸을 더운 기운으로 식히며 더위로 인해 약해지는 몸을 덥게 하고 따뜻한 영양이 있는 음식물을 섭취하여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열치열의 한 측면은 더워진 몸을 찬기운으로 식히는것이 아니라 더운 기운으로 식힌다는것이다. 그 리유는 더워진 몸안으로 들어간 찬기운은 체온을 낮추고 영양이 있는 음식물을 섭취하여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열치열의 한 측면은 더워진 몸을 찬기운으로 식히는것이 아니라 더운 기운으로 식힌다는것이다. 그 리유는 더워진 몸안으로 들어간 찬기운은 체온을 낮추고 영양이 있는 음식물을 섭취하여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더울 때 찬것을 먹거나 찬물복용을 하는것보

다 뜨거운 차를 마시거나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것이 갈증을 해소하는데서나 더위를 방지하는데서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옛날 사람들이 여름철에 즐겨 만들어먹은 음료인 수정과도 물리적으로는 찬 것같지만 그 재료의 하나인 《유계》(계수나무의 껍질)가 몸을 덥혀주는 작용을 하므로 입안에서는 시원하고 몸안에 들어가서는 몸을 덥혀주는 2중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열치열의 다른 한 측면은 더위로 인해 약해지는 몸을 보호하는데 좋은 따뜻한 고 영양이 있는 음식물을 섭취해야 한다는것이다. 그 리유는 날씨가 더워지면 몸의 표면은 뜨거워지지만 내부는 차가워지며 반대로 날씨가 추워지면 몸의 외부는 차가워지지만 내부는 뜨거워지며 더위로 땀을 많이 흘리면 몸이 쇠약해지기에땀이

삼복더위때 좋은 썩갓

부, 된장을 넣고 구수하게 끓인 썩갓된장국을 먹으면 오래동안 앓던 감기도 인차 낫는다고 한다. 그것은 이열치열의 한 처방으로서 썩갓된장국이 체내의 땀기를 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때문이라고 한다.》

썩갓은 설사를 멈추게 하는 작용도 한다. 여름에 덥다고 갑자기 찬물을 마신 다음 이불을 잘 덮지 않고 자면 설사나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막는것은 썩갓이 좋다. 썩갓은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 쇠약해진 몸을 튼튼하게 한다고 한다. 조개탕에 썩갓을 넣어 끓이면 썩갓의 저지방, 고단백이 썩갓의 비

조선폭담 무관심성

《동의보감》에는 여름철에 찬음식을 삼가하며 따뜻한 음식을 섭취해야 《토사관란》(심한 구토와 설사사지가 뒤틀리는 병)에 걸리지 않으며 배가 항상 따뜻한 사람이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기술되어있다.》

《여름철의 대표적보신음식으로는 단고기국과 삼계탕이 예로부터 널리 알려져왔다. 단고기국은 1795년 리조 22대왕 정조때 왕의 밤상에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올랐다는 기록이 있다. 삼계탕은 작은 닭에 고려약재를 넣어 만든 음식으로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무더위와 습한 날씨조건으로 몸이 쇠약해지면 삼계탕으로 영양을 보충하였다고 한다. 특히 땀을 흘려야 한다는것이다. 그리유는 날씨가 더워지면 몸의 표면은 뜨거워지지만 내부는 차가워지며 반대로 날씨가 추워지면 몸의 외부는 차가워지지만 내부는 뜨거워지며 더위로 땀을 많이 흘리면 몸이 쇠약해지기에땀이

귀중한 문화유산 《밀성록》

《밀성록》은 리조 22대 왕인 정조가 세손으로 있을 때인 1760년부터 리조의 마지막왕인 순종이 퇴위한 1910년까지 150여년간의 력사적기간에 있었던 여러가지 일들을 편년체식으로 기록한 책으로서 모두 2 300여편으로 되어있다.》

《밀성록》은 제목에서 보는것처럼 정조가 매일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여 놓은 목적으로 편찬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처음에는 정조가 직접 기록하였으나 정식 양으로 즉위한 후부터는 규장각의 신하들에게 초고를 바치게 하고 그것을 비준하는 방법으로 편찬하였다.》

《밀성록》에는 천문관계 자료, 제사 및 의례관계 자료, 왕의 행차와 관련한 자료, 왕이 여러 신하들을 만나거나 담화한 자료, 관리의 등용 및 조종, 과직과 관련한 자료, 각종 산소와 보고서, 장계, 별지문헌들, 과거시험자료, 군사훈련관계자료, 형벌관계자료 등 여러 분야의 자료들이 폭넓게 기록되어있다. 그중 레조에서 레직진행절차에 대하여 안을 짜서 올린 문건,의금부과 형조에서 올린 죄인명단과 사형수명단, 법조

본사기자

민족음식만들기

단고기송이버섯찜

— 음식감(2명분) 삶은 단고기 200g, 송이버섯 200g, 생강즙 5g, 기름 20g, 썩갓 20g, 소금 10g, 후추가루 5g

① 삶은 단고기를 편으로 썬 다음 생강즙, 소금절반,

후추가루절반을 뿌려 양념제용주머니에 넣어 30분정도 재운다. 송이버섯의 1/3정도는 얇게 편내며 썩갓은 잎을 떼 버리고 줄기만 깨끗이 씻는다. ②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단편 소설

기러기 (5)

글 김승기, 그림 김윤일

나지막한 언덕에 올라서니 가을바람이 시원스럽게 불어왔다. 진천읍이 내려다보였다. 《진천 어디로 가시렵니까?》 《우리 향촌은 그대 죽동이라고 불렀다네.》 (?) 죽동이라는 말에 다시 한번 놀란 김향순은 바람을 피하듯 얼굴을 돌리었다. 《향순이 이 고장이 생소할레지?》 《예.》 정윤기의 팔을 끼고 걷는 김향순의 얼굴에는 이름 못할 감정이 슬박슬박 울고 있었다. 숲에 선 로인이 자기의 속마음을 뻔히 들여다보는것 같아 허둥거리며 말했다. 《이런 말이 생각나는군요. (생겨진진 사거룡인)이라고...》

아마도 진천이 살기 좋은 고장인가보지요.》 《허허, 향순이가 옳쿠만. 우리 향토 고사를 다 알고... 나사 살이에는 진천이 좋고 죽어 묻히는데는 룡인이 좋다고? 그게 그럴사한 말이기도 하도 어떻게 사람이 제 맘대로 그렇게 선택을 해서 살고 죽고 하겠나?》 헛된 욕망일뿐이야. 그런데 그 옛 고사를 다시 듣고 보니 참뜻을 음미하게 되는 측면이 있구만. (사거) 라, (사거) 라...》 정윤기는 이렇게 뇌이며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더니 이용하여 걸음을 옮겨 죽동마을을 찾았다. 마을어구에서 그들은 허리가 꼬부장한 할머니를 만났다. 《이 고장에서 사신지 오렘니까?》 《아주 오래 전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는 그 고장으로 말이우.》 할머니면 죽은 사람 주소를 물을까 된가는 노염으로 채머리를 흔드는 할머니는 제갈질을 더듬질하며 걸어갔다. 김향순의 얼굴에는 구름이 깃들었다. 자기의 감정을

더이상 감출수 없었던것이다. 그의 심정과는 관계없이 정윤기는 동네사람들에게 물어 김우성의 묘소가 자리잡은 곳까지 알아냈다. 《향순이, 지금껏 나를 많이 도와왔는데 내가 고향친구의 묘에 분향하는것을 나무라지는 않겠지? 그럼 부탁하세.》 김향순은 정윤기가 시키는 대로 마을에 있는 자그마한 절포에 가서 술과 향대를 사가지고 왔다. 김향순은 젓은 머리카락을 쓸어들리며 어색한 웃음을 내비쳤다. 《이거면 되겠지요. 어서 가십시오. 저기 저 산이랍니다.》 두사람은 반나마 잎이 진 황철나무술속 오솔길을 따라 걸어올라갔다. 풀덤불속에서 쓰르라미가 울고 골짜기에 맑은 내가 돌돌 흘러나왔다. 바가지모양으로 생긴 야산에 묘지들이 있었다. 《여깁니다.》 김향순이 추석날에 벌초한 흔적이 남아있는 묘앞에서 정윤기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금시 쏟아질것 같은 눈물이 맺혀있었다. 《허 옳구만. 내 친구 우성이 여기에 누워있었구그래.》 김향순의 마음에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정윤기가 한동안 묘를 살펴보고나서 그가

제주를 올려놓은 정윤기가 묘지를 마주하고 앉아 마음속으로 친구와 말하기 시작했다. (우성이, 내가 왔네, 옛날 짜개바치친구이던 이 정윤기가 왔단 말일세. 사실 나는 자네를 찾아올 생각이 없었

을수가 없었네. 더우거나 임자가 자기 땅에 나를 잘 돌봐주라는 말까지 했다는것을 알고서는 더는 가만있을 수가 없거든. 우성이, 나는 얼마전에 향가 집으로 청하기에 그의 집으로 간 일이 있었었네. 그때가 자기 아들생일이러면 할아버지 같은분이 오시면 그게 얼마나 좋아했는가고 하기에 갔었지.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네. 그때는 아직 생일음식이 다 되지 않은 때에서 나는 향순이가 부엌에서 일을 하고있는 사이에 그의 책상에 마주앉았었네. 그런데 그 책상앞에 앉으니 그 아들이란 녀석이 코를 훌쩍거리면서 나에게 무슨 책을 하나 속 내놓는것이 아니겠나? 여기에 내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있다는것이였어. 호기심이 동하여 그걸 펼쳐보았더니 거기에 이런것이 씌여져있었는것이 아닌가? (...나는 오늘 아버지가 당부하신대로 정윤기로인을 찾아가었다.))

한 일이 무엇이든 내가 늦게 나왔다 해서 못한일이 무어? 제각기 일삼는 사람이 다를뿐이지.》

본사기자



김향순의 정윤기를 찾아오는 장면